

요약

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2022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.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, IFRS17과 K-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임.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완화될 경우 해외대체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환헤지 비용과 자산가치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과 리스크관리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임. 또한 ESG 및 탄소중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

-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2022년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
 -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저금리 및 완화적 정책기조로 인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풍부한 유동성, 공급망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
 - Fed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테이퍼링(자산매입 축소) 종료 직후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양적 긴축(보유자산 매각)을 시사하며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언급하였음
 -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은 자산가격 변동성을 높이고, 달러화 강세로 인한 신흥국 자본유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음
- 지난 기간 보험회사는 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투자처 확보와 수익률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음
 - 보험회사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및 신규 투자처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,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왔음
 -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기초자산의 실사가 어려워지며 신규 해외투자가 용이하지 않았고, 일부 부동산·항공기 등의 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며 대체투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었음
 -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이차역마진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,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던 것으로 평가됨
-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, IFRS17과 K-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임

- 2022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신규로 매입하는 채권 금리도 상승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
 -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을 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수익 높아져 자산운용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보험회사는 IFRS17과 K-ICS의 시행을 앞두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잔존만기 확대, 자산 위험계수 평가방식의 변화 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자산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
 - 장기 보험부채에 대한 ALM을 위해 장기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예상되며, 자산 위험계수의 정교화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임

○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완화될 경우 해외대체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환헤지 비용과 자산 가치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과 리스크관리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

-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 완화되어 해외 실사가 자유로워질 경우 해외대체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며, 부동산·인프라(SOC) 등의 대체투자 자산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기에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음
- 하지만 미국의 조기긴축 기조하에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경우 환헤지 비용으로 인한 롤오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거시금융여건을 고려하여 환헤지 기간·수단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자산가치 변동에 대비하여 신규 투자처 모색 시에는 자산별, 섹터별로 사전적인 투자 심사·평가의 강화 및 사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의 정교화 등 리스크관리의 고도화가 중요할 것임

○ 또한 보험회사는 ESG,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투자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세계 주요국들은 ESG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처 모색이 지속적으로 필요함
 -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장치 등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가 가능하며, 자본공급자로서 보험회사의 신뢰도 및 평판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
 - 탄소배출 산업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거나 좌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·사업에 투자·대출한 보험회사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